

석사학위논문

기독교 창작 무용
「Euangelion」에 대한 연구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장 미 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 무용
「Euangelion」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Work,
「Euangelion」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무용전공

장미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 무용
「Euangelion」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Work,
「Euangelion」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무용전공

장미희

장미희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안 신 희 (인)

심 사 위 원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박 영 애 (인)

국 문 초 록

기독교 창작 무용 「Euangelion」에 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장 미 학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 무용, 「Euangelion」에 대한 분석연구로서, 작품의 내용적, 형식적 의미를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자는 기독교 무용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한 무용 예술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 진리 중 하나인 구속을 주제로 정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표현의 모티브로 삼아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작품, 「Euangelion」은 한국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표현방법을 연구하여 관객들이 우리나라의 이야기인 듯 느끼도록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사실적인 표현의 안무와 스토리텔링 전개를 적용하여 마치 무용극을 보듯이 내용과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이 필요한데,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의 근본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 이 3중 렌즈를 모두 사용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

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하다. 아울러 기독교 예술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 교회뿐 아니라 세상 문화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앙겔리온(Euangelion)은 “복음”을 뜻하는 그리스어(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을 의미한다. 작품, 「Euangelion」은 3장으로 구성되었고, 총 13분 10초가 소요되며, 내용의 흐름에 따라 음악의 전환과 조명연출을 사용하여 장면 전환을 만들었다.

1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부터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관객들이 현실에서 목도하는 듯 느껴지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마음과 힘을 전하고, 부활과 승리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춤으로 표현함을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인 흰 천이 오브제로 사용되며, 극적인 장면이 부각 되도록 다양한 조명연출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흰 천의 전달과 조명연출을 통해 담아냈다.

2장은 성령의 임재를 표현한 것으로 비둘기, 바람, 불을 형상화하여 움직임 만들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을 모티브로 하여 간절하고 점진적인 움직임의 5인 군무를 구성하였다.

3장은 성도들이 전신 갑주를 상징하는 빨간 부채를 사용하여 영적 싸움을 하는 장면이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시온성을 향해 오늘도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기를 형상화한 부채의 움직임과 다양한 대형 변화, 빠른 이동, 점진적인 전진 동작을 사용하여 5인 군무로 표현하였다. 또한, 5인이 함께 모여 전진하는 모습이 잘 보이도록 세로구역 조명을 사용하여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작품 안에서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3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독교 세계관의 구속과 연결하여 명확한 복음의 내용으로 담고자 하였다. 둘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의 본질이면서 구분된 세 인격이라는 기독교 정통적 신앙고백 위에 구속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셋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의 비전 즉 우리의 소명을 담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관객들과 나누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번 작품공연을 통해 향후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본다. 더 나아가 이를 적용한 작품창작과 공연이 복음 선포와 전도에 보다 적극적인 통로로써 가교역할을 하며, 기독교 무용의 활성화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기독교 무용, 기독교 창작 무용 공연, 기독교 세계관, 구속, 유양겔리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
제 2 장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	5
제 1 절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	5
1) 세계관	5
2) 기독교 세계관	7
제 2 절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 진리	9
1) 창조	10
2) 타락	11
3) 구속	12
4) 삼위일체 하나님	13
제 3 절 기독교 세계관과 예술	15
제 3 장 작품의 개요	18
제 1 절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18
1) 안무 의도	18
2) 작품 내용	19
제 2 절 작품의 성경적 배경	20
1) 1장	20
2) 2장	21
3) 3장	23

제 3 절 작품의 형식 및 구조	25
제 4 절 작품의 구성요소	27
1) 오브제	27
2) 음악	30
3) 의상	32
4) 조명	35
제 4 장 작품의 분석	37
제 1 절 1장 : 뜻이 이루어지이다	37
1) 내용 및 안무 의도	37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8
3) 음악	43
4) 무대장치 및 조명	44
제 2 절 2장 : 성령이 임하시면	49
1) 내용 및 안무 의도	49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50
3) 음악	52
4) 무대장치 및 조명	53
제 3 절 3장 : 시온성을 향한 선한 싸움	55
1) 내용 및 안무 의도	55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56
3) 음악	60
4) 무대장치 및 조명	61
제 5 장 결 론	63
참 고 문 헌	66
부 록	68

ABSTRACT	70
----------------	----

표 목 차

[표 3-1] 1장의 배경 성경 구절	21
[표 3-2] 2장의 배경 성경 구절	22
[표 3-3] 3장의 배경 성경 구절	23
[표 3-4] 작품의 형식 및 구조	26
[표 3-5] 의상에 사용된 색의 상징적 의미	34
[표 3-6] 빛의 방향별 특성	36
[표 4-1] 무대의 구역 구분	38
[표 4-2] 기호와 경로 색	38
[표 4-3] 1장의 조명 플랜	44
[표 4-4] 2장의 조명 플랜	53
[표 4-5] 3장의 조명 플랜	61

그 립 목 차

[그림 3-1] 오브제 1 나무 십자가	27
[그림 3-2] 오브제 2 흰 천	28
[그림 3-3] 오브제 3 빨간 부채	29
[그림 3-4] 무용수 1 의상	32
[그림 3-5] 무용수 2 의상	32
[그림 3-6] 무용수 3 의상	33
[그림 3-7] 무용수 4, 5 의상	33
[그림 4-1] 사명의 길	39
[그림 4-2] 경로 1	39
[그림 4-3] 목숨을 건 기도	39
[그림 4-4] 경로 2	39
[그림 4-5] 하나님의 마음	40
[그림 4-6] 경로 3	40
[그림 4-7] 고난의 골고다	40
[그림 4-8] 경로 4	40
[그림 4-9] 힘을 주소서	41
[그림 4-10] 경로 5	41
[그림 4-11] 휘장이 찢기어	41
[그림 4-12] 경로 6	41
[그림 4-13] 승리의 부활	42
[그림 4-14] 경로 7	42
[그림 4-15] 삼위일체 하나님	42
[그림 4-16] 경로 8	42
[그림 4-17] 성령의 임재	50
[그림 4-18] 영혼을 찾아	50
[그림 4-19] 경로 9	50
[그림 4-20] 새로운 피조물	51

[그림 4-21] 경로 10	51
[그림 4-22]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51
[그림 4-23] 경로 11	51
[그림 4-24] 우리의 선포	52
[그림 4-25] 경로 12	52
[그림 4-26] 하나님의 군사	56
[그림 4-27] 경로 13	56
[그림 4-28] 전신 갑주를 입고 1	56
[그림 4-29] 경로 14	56
[그림 4-30] 전신 갑주를 입고 2	57
[그림 4-31] 경로 15	57
[그림 4-32] 선택 싸움	57
[그림 4-33] 경로 16	57
[그림 4-34] 나팔 소리 시온성에	58
[그림 4-35] 경로 17	58
[그림 4-36] 하나님의 날개 아래	58
[그림 4-37] 경로 18	58
[그림 4-38] 시온성을 향하여 1	59
[그림 4-39] 경로 19	59
[그림 4-40] 시온성을 향하여 2	59
[그림 4-41] 경로 20	5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계관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 및 인생의 가치나 의의에 관한 통일적인 관점’¹⁾이며,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틀이나 방식’²⁾, 또는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³⁾을 의미한다. 아더 홈즈(Arthur F. Holmes)는 우리가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를 4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사유와 삶의 통일을 위해서, 둘째는 선한 생활을 정의하고 인생의 희망과 목적을 찾기 위해서, 셋째는 사고를 인도하기 위해서, 넷째는 행동을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따라서 세계관은 인간의 삶 전반에서 행해지는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설정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⁴⁾

세상에 세계관은 여러 유형으로 존재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해 형성된 세계관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와 인생과 문화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 학자들은 예술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술이란 찬양하는 대상을 형상화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작품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것을 권면한다.⁵⁾

기독교 세계관과 예술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학과 미술, 음악의 영역들은 다수 찾아볼 수 있으나, 무용에 관련해서는 김준수(2012)의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한국선교무용에 관한 비판 수용적 고찰’과 김수진(2015)의 ‘기독교 예술관을 적용한 무

1)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5f0e0882be44772b8b68025d2c928e6> 『고려대한국어대사전』.

2)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A%B4%80> 『위키백과』.

3) <https://namu.wiki/w/%EC%84%B8%EA%B3%84%EA%B4%80> 『나무백과』.

4) 이승구. (2003).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p.20.

5) 김민호. (2022). 『기독교세계관』. 경기도: 리바이벌북스, pp.224-231.

용 예술의 방향 2편의 연구를 찾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⁶⁾ 이에 연구자는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한 무용 예술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최지연(2013)은 기독교 무용이 공연예술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주제의 작품을 일반 무대에 올려야 한다⁷⁾고 주장하였고, 김광옥(2017)은 기독교 무용이 기독교 문화를 이끄는 공연예술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의 필요성⁸⁾을 제시한 것과 같이 연구자도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창작하여 적용과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 진리는 성경의 핵심 내용으로 창조, 타락, 구속이며 이중 구속은 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기에 성경의 내용 중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되었다. 유앙겔리온(Euangelion)은 “복음”을 뜻하는 그리스어(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을 의미한다.⁹⁾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요 영원한 소망의 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한다.¹⁰⁾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부활의 복음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다고 하며¹¹⁾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작품, 「Euangelion」의 주제성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인 요한복음 3장 16-17절이다. 작품 안에서 본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한 3가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검색.

7) 최지연. (2013). “기독교무용의 가치인식 변화에 따른 공연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p.46.

8) 김광옥. (2017). “한국음악을 활용한 기독교 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p.59.

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5496&cid=50762&categoryId=51365> 『교회용어사전』.

10) 로마서 1:1-7.

11) 갈라디아서 6:14.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새번역 성경』.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독교 세계관의 구속과 연결하여 명확한 복음의 내용으로 담고자 한 것이다.

둘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의 본질이면서 구분된 세 인격이라는 기독교 정통적 신앙고백 위에 구속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밝혀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셋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의 비전 즉 우리의 소명을 담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관객들과 나누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 무용, 「Euangelion」에 대한 분석연구로서,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의 핵심인 구속을 주제로 창작되어 공연된 작품의 내용적, 형식적인 의미를 연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향후 기독교 무용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기독교 세계관이 접목된 작품창작과 무대공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23년 11월 20일 오후 7시 M 극장에서 공연된 기독교 창작 무용, 「Euangelion」에 관한 것으로, 작품 분석을 위해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참고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작품의 성경적 배경을 위해서는 전문 서적과 관련 학술지, 학위논문 등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 「Euangelion」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근본 진리 중 구속을 주제로 창작되었기에 이해를 위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개념,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 진리, 기독교 세계관과 예술로 구분하여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안무 의도와 작품 내용, 성경적 배경을 설명하였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작품의 형식과 구조, 구성요소인 오브제, 음악, 의상, 조명 사용을 설명하였다.

셋째, 작품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장별로 내용 및 안무 의도,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음악, 무대장치 및 조명을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의 결론으로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창작 및 연구 과정 중 깨달은 바와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

제 2 장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

제 1 절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

1) 세계관

세계관을 ‘Weltanschauung’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세계’를 뜻하는 ‘Welt’와 말과 마음, 정신적인 직관을 뜻하는 ‘Anschauung’의 합성어으로써 ‘world-view’라고도 한다.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인식 또는 판단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비유되는데,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안경을 통해 가시적 대상을 인식하듯이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통해 가시적, 비가시적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게 된다. 이 세계관은 바꾸거나 고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벗어 버릴 수 없는 것으로써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조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누구도 세계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으며,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각각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¹²⁾

세계관을 정의한 학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는 ‘한 사람이 가지는 사물에 관한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 세계관이라고 정의하면서 4가지의 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첫째, ‘사물들’이란 우리 신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지칭할 수 있는데 자연뿐 아니라 하나님, 인간, 사회, 가치관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둘째, 세계관은 개인의 신념의 문제로써 ‘지적 주장’ 즉 지식을 주장하는 것이기에 느낌이나 감정, 의견과는 구별이 된다. 셋째, 세계관이 사물들에 관한 근본적 신념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궁극적인 의문들인 일반 원리와 관계가 있다. 넷째,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은 하나의 틀이나 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는데 늘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패턴을 이루려고 한다. 월터스(Wolters)는 이 세계관이 우리의 견해나 논점, 모든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12) 양승훈, (1999).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CUP, pp.33-35.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¹³⁾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는 세계관이란 ‘이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이라고 정의하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정은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이어는 7가지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세계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재는 무엇인가? 둘째, 외부의 실재, 즉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인간은 무엇인가? 넷째, 인간이 사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섯째, 지식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 여섯째, 도덕의 기초는 무엇인가? 일곱째,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주요 세계관들의 답변을 검토하여 각각의 세계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¹⁴⁾ 사이어(Sire)는 ‘어느 시대의 세계관의 수는 그 시대에 사는 의식적 존재의 수만큼 많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양한 세계관들이 일정한 유형들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리차드 미들튼(J. Richard Middleton)과 브라이언 왈쉬(Brian J. Walsh)는 세계관에 대해 ‘인식의 틀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¹⁶⁾ 또한, 실체의 전체성에 대한 이론적 견해의 차이를 근거로 철학은 이론적이지만 세계관은 이론적이지 않다(전이론적이다)고 하였다.¹⁷⁾

안점식은 세계관을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표현하면서 공부를 통해 학습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모든 사람은 체득된 경험들이 이성의 합리화 작용을 통해 무의식적, 무의도적으로 구조화되어 나타난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이 진리라고 확신하나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문화충격’을 받게 된다고도 하였다.¹⁸⁾

이승구는 세계관이란 ‘지각의 틀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고, 삶에 대한 시각이요, 삶을 위한 시각’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계에

13) 알버트 월터스. (2007).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홍병룡(역). 서울: IVP, pp.25-29.

14) 제임스 사이어. (198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역). 서울: IVP, pp.20-24.

15) 상계서, p.272.

16) 리차드 미들튼·브라이언 왈쉬. (1987).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역). 서울: IVP, p.18.

17) 상계서, p.212.

18) 안점식. (1998). 『세계관을 분별하라』. 서울: 죠이선교회, pp.17-18.

대한 나름의 관점과 이해를 통해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였다.¹⁹⁾

위와 같이 세계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일관성 있는 신념 체계의 필요를 인지하며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 세계관은 사람들의 견해와 논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결정과 실행의 과정 즉 사람들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아더 홈즈(Arthur F. Holmes)는 올바른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를 바른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책임 있는 선택과 바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²⁰⁾ 따라서 세계관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행해지는 사고와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설정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Christian's world-view)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내용 둘 다를 포함한다.²¹⁾ 크리스천(Christian)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자’라는 명사와 ‘기독교적’이라는 형용사로 함께 쓰이는데 이는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된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학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먼저 송인규는 기독교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 원리에 입각하여 이 세계와 인생과 문화 전체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삶의 자세를 확립하는 기독교적인 안목’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건과 우리 삶은 커다란 손실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²²⁾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넷슨(Robert D. Knudsen)은 “기독교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중심을 둔 진리에 대한 반성으로 심오해진 ‘체계화된 지혜’라고 정의를 내렸다. 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체계화한 것이 아닌 체계화된

19) 이승구, 전제서, pp.13-14.

20) 아더 홈즈. (1983). 『기독교적 세계관』. 이승구(역). 서울: 엠마오, p.16.

21) 이승구, 전제서, p.16.

22) 송인규. (2008).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서울: IVP, p.7.

진리를 조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²³⁾

리차드 미들튼(J. Richard Middleton)과 브라이언 왈쉬(Brian J. Walsh)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세계관을 판단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한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수정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²⁴⁾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끄는 세계관을 찾기 위해 성경에서 교훈을 구해야 한다.²⁵⁾

존 칼빈(John Calvin)은 성경을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라고 표현하며 성경은 어두워진 우리 눈의 안력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 삼중 렌즈로 만들어진 특수 안경과 같다고 하였다. 인도의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look at) 할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아야(look through) 할 책이라고 설명하였다.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앙고백에 따르면 성경은 “신앙과 삶의 규범”이라고 한다. 신국원은 성경은 우리가 자연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안목을 고쳐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든다고 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정의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이란 단어로 바꾸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²⁶⁾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는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일 때만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에 비추어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경의 내용과 가르침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문화 전체와 연관시켜야 한다고도 하였다.²⁷⁾

안점식은 사람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지기에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설득으로는 세계관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

23) 양승훈, 전제서, pp.46-47.

24)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

25) 리차드 미들튼·브라이언 왈쉬, 전제서, p.47.

26)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pp.43-45.

27) 알버트 월터스, 전제서, pp.31-34.

다.²⁸⁾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세계 즉 자연과 인생과 역사와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선택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觀)”을 개개인이 가지므로 자신이 속한 삶 전체에 영향을 끼쳐 선택과 행동의 실천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비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 확립을 위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²⁹⁾

제 2 절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 진리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³⁰⁾ 전광식은 성경이 세계의 기원과 의미, 본질과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말하면서 이 세계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는 죄로 인해 타락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은총으로 회복되었다. 둘째, 시공적 유한성을 가지는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며 의미를 부여받는다. 셋째, 세계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3가지 특성은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 틀인 창조(Creation) · 타락(Fall) · 구속(Redemption)으로 발전되었는데³¹⁾ 이것은 성경의 3중 안경 렌즈로서 우리의 눈을 밝혀 세상을 바로 이해하게 한다. 다음은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 진리인 창조 · 타락 · 구속과 작품, 「Euangelion」의 내용에서 중요한 개념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8) 안점식, 전게서, pp.24-25.

29) 상게서, pp.28-29.

30) 양승훈, 전게서, pp.47-48.

31) 전광식. (1995).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사상연구』, 2: 11-12.

1) 창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며, 기독교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 또한 하나님과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다. 사도신경의 첫 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는 창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것으로 창조가 성경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에게 창조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다면 죄와 구속에 대해서도 왜곡된 이해를 하게 될 것이기에 성경의 창조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된다.³²⁾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는 창조에 대해 ‘창조주의 주권적인 행위와 창조 질서의 상호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분의 관심밖에 있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있는데 ‘창조 기사’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고, ‘창조의 아름다움’은 창조의 산물인 우주로서 창조 질서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주(cosmos)는 ‘장식’, ‘아름다운 배열’이라는 뜻의 헬라어 코스모스(kosmos)에서 유래되었다.³³⁾ 말씀으로 무에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창조 질서를 위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즉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조물의 보존을 이행하고 계신 것이다.³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는 원형(archtype)이신 하나님을 반영(reflection, image)하는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시며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피조물의 대표요, 지배자로 위임하셨다.³⁵⁾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별력과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청지기로 세우셨다.³⁶⁾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32) 리처드 미들톤·브라이언 왈쉬, 전계서, pp.50-51.

33) 알버트 월터스, 전계서, pp.41-43.

34) 히브리서 1:2-3.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번역 성경』.

35) 이승구, 전계서, pp.123-130.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³⁷⁾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은 역사 전반에 걸쳐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³⁸⁾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소요리문답의 첫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나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답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이해하고 창조 질서와 뜻을 인정하여 순종하며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³⁹⁾

2) 타락

타락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그 주권을 세우는 것이다.⁴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완전한 창조세계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 타락하고 만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제시된 기준이었으나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기대한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거부한 채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고 분리되었으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⁴¹⁾

인간의 불순종으로 초래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상숭배라는 죄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종교적 본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고 의지하며 섬길 대상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36) 신국원, 전계서, P.74.

37) 창세기 1:26. 『개역개정 성경』.

38) 양승훈, 전계서, P.66.

39) 신국원, 전계서, P.78.

40) 상계서, p.95.

41) 양승훈, 전계서, pp.74-78.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거룩성을 상실하게 하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렸다.⁴²⁾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악하게 된 인간은 정욕과 불신에 빠지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마저 깨트려 버렸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의 성향이 생긴 것이다.⁴³⁾

인간이 저지른 죄는 피조세계까지 영향을 미쳐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인간에게 필요한 소산물을 스스로 산출하지 못하게 되었다.⁴⁴⁾ 타락 이전 피조세계는 인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였으나 이제는 대적하고 있으며, 인간 또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훼손을 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이다. 이뿐만 아니라 피조물 간의 관계도 훼손되어 동물들 사이에 양육강식, 적자생존 등의 원칙이 생기게 되었다.⁴⁵⁾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하였고,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종노릇하는 상태에 이르렀다.⁴⁶⁾ 이로 인해 피조세계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악한 영향을 받아 점점 더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⁴⁷⁾

3) 구속

구속이란 타락한 피조세계를 선하게 창조되었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은 값을 치르고 본래의 자유를 도로 사준다는 구속(redemption), 본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화해(reconciliation),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새롭게 함(renewal),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거듭남(regeneration)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으며, 이 모든 단어는 회복(restoration)을 의미한다.⁴⁸⁾

42) 상계서, pp.80-81.

43) 상계서, pp.84-86.

44) 창세기 3:17-18.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새번역 성경』.

45) 양승훈, 전계서, pp.88-89.

46) 김민수. (2018). “선교사 자녀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생활의 상관관계이해를 통한 신앙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p.13.

47) 로마서 8:22.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번역 성경』.

인간의 타락 직후 창세기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언되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배경을 마련하며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과 맺은 언약을 통해 구속사를 진행하셨다.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감당하셨고 인간의 불순종을 겸손과 순종으로 회복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룬 것은 공중 권세자인 사탄을 공격해서 승리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킨 것이다.⁴⁹⁾

구속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이며,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한 것이다. 이것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시작된 모든 악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됨을 뜻하며, 이 구속의 새로움은 우리 영혼의 거듭남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짐을 의미한다.⁵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⁵¹⁾ 말씀과 같이 구속은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것이다. 구속을 통해 인류와 창조세계가 회복되었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여 성화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하고, 회복시키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⁵²⁾

4)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의 신학적 개념은 “하나의 본질이면서 구분된 세 인격”을 말하며, 이 교리는 4세기 후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되었다.⁵³⁾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48) 알버트 월터스, 전게서, pp.116-117.

49) 리차드 미들톤·브라이언 왈쉬, 전게서, pp.89-99.

50) 최용준. (2008). 『세계관은 삶이다』. 서울: CUP, pp.102-103.

51) 고린도후서 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번역 성경』.

52) 유은경. (2018). “기독교 예비영유아교사의 기독교세계관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pp.14-15.

53) 오진철. (2022). “삼위일체 신관의 신학적 의미와 목회적 적용.” 『복음과 실천』, 69(1):

서로 구별되는 인격이신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이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 분이 하나님으로서 가진 신성은 하나다'라는 것이다.⁵⁴⁾ 또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소요리문답의 6번도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있고,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요 하나의 본체이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고 답변한다.⁵⁵⁾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으나, 그 근거로 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전서 12장 4-6절, 에베소서 4장 4-6절이다.

(창세기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전서 12:4-6)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에베소서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창조주이자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 온 세상 영혼 구속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성육신으로 오셔서 겸손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에게 임재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40-42.

54) 백금산·김종두. (2014). 『만화로 보는 조직신학 시리즈 만화신문』. 서울: 부흥과개혁사, p.77.

55) 상계서, p.96.

이 존재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Divine Mystery)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모든 기독교 전통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⁶⁾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구속사건이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의 공동사역이라는 것이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결정된 사건이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이뤄질 때 성령으로 삼위가 함께 고통당하셨다. 성령님은 오늘도 십자가 구속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⁵⁷⁾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구원론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⁵⁸⁾

제 3 절 기독교 세계관과 예술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예술이 오감의 자극을 통해 직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자극을 통한 느낌으로 사람들은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하면서 예술의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즐길 수 있다고 말하며, 예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람은 예술을 통해 찬양하는 대상을 형상화하고, 예술은 찬양의 대상을 예배하는 결과물로 생성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 비로소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⁵⁹⁾

한스 로크마커(Hans Rookmaaker)는 예술에서 기독교성을 결정짓는 것은 담겨있는 정신(spirit)이라고 하며 예술이 투시하는 실재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한다.⁶⁰⁾ 예술을 통해 신학적 해석을 하는 신학자 라영환은 기독교

56) 오진철, 전계논문, pp.38-39.

57) 상계논문, p.49.

58) 상계논문, p.43.

59) 김민호, 전계서, pp.202-207.

60) 한스 로크마커. (1993).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김유리(역). 서울: IVP, pp.283-284.

예술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술 행위가 기독교 예술일 수는 없으나, 기독교 예술의 주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예술의 형식과 내용이 일반 예술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 행위 즉 작품이 소유한 세계관과 거기에 담긴 담론들이라고 하였다.⁶¹⁾ 좀 더 엄격하게 말한 힐러리 브랜드(Hilary Brand)와 아드리엔느 채플린(Adrienne Chaplin)은 진정한 기독교 예술에 대해 주체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의 주제나 내용을 다루거나, 목적이 예배와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간과 세계를 해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독교 예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⁶²⁾

오늘날의 예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아닌 사람들의 욕망 분출과 쾌락 승배의 수단이 되어버려 점점 파괴적이고 음란하며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교회 는 기독교적 예술로 거룩한 유행을 형성하여 파괴되어 가는 세상에 제동장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기독교 예술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보다 더 고귀하고 고상한 작품을 만들어야 하며,⁶³⁾ 그런 발전된 작품창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개발을 통한 해산의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술이 부도덕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⁶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타락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함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를 위하는 것 즉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은 우상숭배이기에 자신의 만족이 아닌 찬양받으실 대상이신 하나님만이 고려되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지를 늘 점

61) 라영환. (2007). 『예술, 모더니즘 그리고 기독교 신앙』. 서울: 예서원, pp.53-54.

62) 힐러리 브랜드·아드리엔느 채플린. (2004). 『예술과 영혼』. 오윤성(역). 서울: IVP, pp.14-15.

63) 신국원. (2002),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서울: IVP, pp.173-175.

64) 로마서 12:1-2. 『개역개정 성경』.

검해야 한다. 이 분별함과 점검의 기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며, 기독교 예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수행할 뿐 아니라⁶⁵⁾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shalom’의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⁶⁶⁾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예술에 대한 이해를 3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반영을 예술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피조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표현이 창조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예술로 표현되면 세계관이 더욱 강화된다. 예술을 통해 호소력 있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으며, 예술성을 강화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예술 작품을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한다. 예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탁월한 부분은 수용해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 걸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지혜와 성숙이 필요하다. 성경적 메시지를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방법도 고민해서 좀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⁶⁷⁾ 쉐퍼가 말하는 기독교 예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기독교 세계관이 잠재해 있어야 한다.

예술이란 찬양하는 대상을 형상화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속성(온전하심, 지혜로우심, 사랑하심, 선하심, 탁월하심 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예술 행위의 결과물인 작품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담아내어 세상을 정복하는 수단으로 잘 사용⁶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독교 예술인들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65) 김민호, 전계서, pp.209-216.

66) 신국원, (2002), 전계서, p.217.

67) 프란시스 쉐퍼, (1962), 『예술과 성경』, 김진홍(역), 서울:생명의말씀사, pp.33-37.

68) 김민호, 전계서, pp.224-231.

제 3 장 작품의 개요

제 1 절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1) 안무 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듯,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세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 안에 투영시키며 살아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 예술인들은 신국원(2002) 교수의 주장과 같이 창작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한다. 따라서 창작 무용, 「Euangelion」은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비전 즉 온 세상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작품 안에 투영시키고자 한국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표현방법을 연구하여 작품화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서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한 3가지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 중 구속을 주제로 하여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성경에서 구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복음의 핵심인데, 교회용어사전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독교 세계관의 구속과 연결하여 명확한 복음의 내용으로 담고자 하였다.

둘째는 구원론이 기반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작품 전반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의 본질이면서 구분된 세 인격이라는 기독교 정통적 신앙고백 위에, 구속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의 중요 개념이기도 하고, 창세 전부터 함께 하시며 인간의 구속을 이루시고 지

금도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셋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의 비전 즉 우리의 소명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복음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기억하며, 전파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이다.⁶⁹⁾ 그러기에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살아야 할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알도록 끝까지 가르치며 훈계할 것을 권면하였다. 자신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중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였다.⁷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자세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보았다.

2) 작품 내용

작품, 「Euangelion」은 단어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생명과 회복을 언약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언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세상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과 순종으로 화목제물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 구속사의 성취로 인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작품의 주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17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6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5496&cid=50762&categoryId=51365>
『교회용어사전』.

70) 디모데후서 4:1-8.

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⁷¹⁾

젯세마네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함께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그의 뜻을 이루셨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한 복음의 선포자요 영적 군사가 된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온 맘과 뜻과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은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뿐 아니라 온 세상 영혼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제 2 절 작품의 성경적 배경

1) 1장

젯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목숨을 걸고 간절히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되는 1장은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미지를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스토리텔링 하고자 하였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겪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신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22장 42-44절의 내용을 사실적인 표현의 움직임으로 담았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적힌 대로 예수님의 고통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그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있음을 장면에 구성하였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기쁨으로 추는 2인무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적힌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성부, 성자, 성

71) 요한복음 3:16-17, 『개역개정 성경』.

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구속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흰 천을 매개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적힌 대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다시 지고 퇴장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다음은 1장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1]. 1장의 배경 성경 구절

구분	성경 구절	새번역 성경 내용
1	누가복음 22:42-44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떨어졌다.
2	고린도전서 15:3-4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3	요한복음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4	마가복음 16:20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2) 2장

2장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근거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할 때 익숙한 이미지인 비둘기를 형상화하였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비유한 바람과 불의 형태를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은 에스겔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환상⁷²⁾을 접목해 절도 있고 간결하며

진취적인 동작을 사용해 생기를 회복하고 강해짐을 나타냈다. 다음 표는 2장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다.

[표 3-2]. 2장의 배경 성경 구절

구분	성경 구절	새번역 성경 내용
1	요한복음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2	사도행전 2:2-4	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의 솟아오를 때 햇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3	고린도후서 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2장에서 중심으로 표현한 것은 성령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에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⁷³⁾ 14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은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절에 살아있는 자들이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다. 이 새 생명으로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다시 자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를 위함이며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 위에 사는 삶이다.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72) 에스겔 37:1-14.

73) <https://www.youtube.com/watch?v=r7dI-ITowvw> 『옥한음목사 설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새로운 피조물의 소명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바꾸셨다. 이것이 바로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다.

3) 3장

3장에서는 에베소서 6장 13-17절에 나와 있는 전신 갑주로 무장한 영적 군사를 표현하기 위해 검, 방패, 투구, 허리띠 등을 부채를 활용해 이미지화 및 형상화하여 강렬하고 역동적인 동작과 다양한 대형 변화로 구성하였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디모데후서 4장 7-8절의 의미를 넣어 영적 군사인 우리가 싸우고 전진하는 표현을 안무하였다. 다음은 3장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표로 기재한 것이다.

[표 3-3]. 3장의 배경 성경 구절

구분	성경 구절	새번역 성경 내용
1	에베소서 6:13-17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2	사도행전 1:8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3	디모데후서 4:7-8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3장에서 빨간 부채가 의미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3-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다. 전신 갑주는 전투를 위해 갖추는 군인의 모든 장비를 말하며,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한 완전무장에서 유래되었다.⁷⁴⁾ 전신 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력의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재봉의 해석에 의하면,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진리, 정의의 가슴막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믿음과 사랑, 평화의 복음의 신발은 복음 전도,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참, 성령의 겹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 모든 전신 갑주를 갖추고 사용하는 것에 기도가 선행과 과정과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성령의 지혜와 인도와 능력을 전신 갑주와 함께 늘 갖추어야 한다.⁷⁵⁾

디모데후서 4장 7-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경건한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며, 세상 유익을 위해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영생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⁷⁶⁾ 디모데후서 4장 1-6

74) 고재봉. (1992). “에베소서 6장 10~20절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과 실천』, 15(1): 12.

75) 상계논문, pp.27-28.

7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5731&cid=50762&categoryId=51365> 『교회용어사전』.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알도록 끝까지 가르치며 훈계할 것을 권면하였다. 자신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하며, 중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였다.

제 3 절 작품의 형식 및 구조

창작 무용, 「Euangelion」은 예수님의 겿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거듭난 성도들의 시온성을 향한 선한 싸움까지의 내용을 이야기전개방식을 사용하여 한국적 움직임으로 풀어낸 기독교 창작 무용 작품이다. 전체 3장으로 구성되었고 총 소요시간은 13분 10초이며 내용의 흐름에 따라 음악의 전환과 조명의 사용으로 장면 전환을 만들었다.

1장은 두 무용수가 각각 표현하는 인물의 움직임을 시간차로 진행하거나 한 무대에 설 때는 각자의 움직임을 표현한 2인무 형식이다. 예수님의 겿세마네 기도와 십자가 고난, 죽음의 과정이 혼자인 것 같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다. 관객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현실에서 목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거칠고 사실적인 동작으로 표현되었다.

2장은 1인 독무와 5인 군무 두 가지 형식이 사용되는데, 1인 독무는 무용수가 나타내고자 한 성령님을 무대 센터(center) 위주 제한된 공간 안에서 표현하므로 영혼을 찾아 내려오셨다는 것이 관객에게 잘 보이도록 하였다. 성령님의 움직임은 보혜사 성령의 상징적 이미지인 비둘기, 불, 바람의 형상과 품에 안는 동작을 적용하였다. 5인 군무는 간결하고 강인하며 절도있는 표현을 위해 무용수의 뒷모습과 바닥에서 점점 일어서는 점진적 움직임을 사용하여 성령의 임재로 거듭남과 살아남을 표현하였다.

3장은 5인 군무 형식으로 오브제인 부채를 사용하여 다양한 대형 변화와 무대사용을 통해 전쟁의 모습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믿음을 지키고 복

음을 전하는 과정과 거룩한 시온성을 향해 함께 가자는 유도를 위해 전진의 동작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안무하였다. 위에 설명한 작품의 형식과 구조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4]. 작품의 형식 및 구조

구분	표현방법	표현형식	소요시간
1장	- 두 무용수의 시간차 독무와 한 무대에서 각자 다른 움직임으로 진행한 2인무 형식. -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혼자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함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 설정. - 관객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직접 목도하는 느낌을 받도록 거칠고 사실적인 동작으로 표현.	시간차 독무 형식의 2인무	6' 50"
2장	- 1인 독무로 관객의 시선이 집중되는 센터(center) 위주의 제한된 무대를 사용하여 성령님의 형상화된 모습이 잘 보이게 함. - 5인 군무로 간결하고 강인하며 절도있는 표현을 위해 무용수의 뒷모습과 바닥에서 점점 일어서는 점진적 움직임을 사용하여 성령의 임재로 거듭남과 살아남을 표현.	1인 독무 & 5인 군무	3' 20"
3장	- 5인 군무로 오브제인 부채를 사용하여 다양한 대형과 빠르고 역동적인 움직임, 전진의 동작을 구성하여 전쟁을 표현. - 부채로 전신 갑주의 이미지 및 형상을 담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표현.	5인 군무	3'

제 4 절 작품의 구성요소

1) 오브제

무용에서 오브제는 모양, 크기, 색, 재질에 따라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 오브제에 따라 사용범위가 달라지고, 상징적 의미를 연출하며, 재질에 따라 다른 감정과 상징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여러 시각적 무대효과를 부여한다.⁷⁷⁾ 창작 무용, 「Euangelion」에는 3가지의 오브제가 나오는데, 1장에서는 나무 십자가와 흰 천, 3장에서는 빨간 부채가 사용된다.

가) 나무 십자가



〈그림 3-1〉. 오브제 1 나무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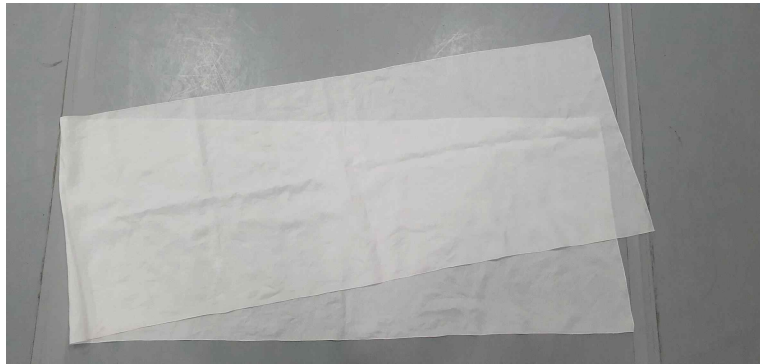
로마에서 죄인의 사형형틀로 사용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대속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⁷⁸⁾ 작품, 「Euangelion」에서 나무 십자가는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죽음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동일한 느낌을 주고자 나무에 한지를

77) 장차오. (2022). “무용 창작시 오브제의 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p.56.

78)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94472&cid=50762&categoryId=51387>
『라이프성경사전』.

입혀 제작하였고, 빛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십자가 중앙에서부터 점점 색감이 어둡게 되는 그라데이션(gradation) 효과를 주었다. 어깨에 걸 수 있게 연결한 새끼줄은 겹줄로 꼬아진 형태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단단하게 이어 회복시키심을 의도하여 한국적인 요소로 설정한 것이다.

나) 흰 천



〈그림 3-2〉. 오브제 2 흰 천

실크(silk)로 불리는 명주 천을 가로 55cm 세로 3m의 크기로 제작하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한량없는 사랑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순결, 거룩, 정직, 완전성 등을 상징하는 순백색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흰 천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선과 면, 천이 그리는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예수님이 가야 할 사명의 길과 또 함께하시며 아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흰 천을 플로어(floor)에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고, 찢어지는 휘장과 부활 후 승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공중에서 크게 흔들거나 휘날리는 움직임을 구상하였다. 구속 사역이 하나님에서 예수님에게로 다시 성령님으로 연결되는 삼위일체 공동사역임을 드러내고자 흰 천을 연결고리로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냈다.

다) 빨간 부채



〈그림 3-3〉. 오브제 3 빨간 부채

3장에서 사용되는 빨간 부채는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전신 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 승리이며, 여러 가지 부채 중 소리를 낼 수 있는 형태와 재질의 부채를 선택하였다. 부채를 펼치고, 접고, 바닥에 내리치고, 공간을 가를 때 나는 여러 가지 소리를 효과음처럼 사용하기 위해서와 강한 군사의 강력한 무기의 느낌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부채를 들고 하는 군무는 하나님께 전신 갑주를 입은 군대의 움직임을 표현했는데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검을 이미지화 및 형상화하여 군무의 형태로 창작하였다. 또한, 승리의 깃발을 표현하는 상징적 매체로도 사용되었다.

2) 음악

무용음악은 무용창작의 중요한 요소로써 형식과 소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상황의 전개를 암시해준다. 리듬(rhythm)과 악센트(accent), 템포(tempo), 조성, 사용되는 악기의 음색 등과 관련하여 분위기를 설정하고, 무용수에게 리듬을 제공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하게 한다. 따라서 무용음악은 무용 동작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⁷⁹⁾ 창작 무용, 「Euangelion」에서는 무용음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위해 작곡된 음악 2곡과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찬양곡 2곡, 효과음을 편집하여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작곡된 음악

작품을 위해 작곡된 곡은 2곡으로써 첫 번째 곡은 대북의 소리를 사용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표현한 곡이다. 처음에는 크고 천천히 북을 치다가 심장박동처럼 템포가 점점 빨라지면서 고조를 이루는데 영혼을 찾아 생명을 살리려 품는 동작의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 곡은 바람 소리와 좀 더 빠른 템포의 대북 소리 그리고 현대적 전자 사운드를 접목한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의 움직임에 부합되도록 강하고 간결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이 2곡은 2장에서 사용되었다.

나) CCM 찬양곡

음반 발매가 된 CCM 찬양곡 중에서 2곡을 선택하였는데 첫 번째 곡은 클래식 콰이어의 음반 중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로 “갯세마네 기도”라는 부제목을 가진 곡이다. 이 곡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부르는 남녀 혼성 중창곡으로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토대로 가사가 쓰였으며, 1장 전체에 사용

79) 이선민. (2010). “무용작품에 나타난 음악적 특성 연구-Mark Morris의 「Falling Down Stairs」와 Trisha Brown의 「M·O」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p.6-7.

되었다. 두 번째 곡은 양각 나팔 소리를 시작으로 하여 남성 중창단이 북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는 “저 성벽을 향해”이다. 양각 나팔은 제사장의 악기로 찬양과 경배, 예배용으로 사용되던 것이다.⁸⁰⁾ 이 곡은 예수전도단의 음반에 수록된 곡 중 국악 풍의 CCM 찬양곡으로 중반 이후 해금과 양각 나팔 소리가 첨가되면서 더욱 고조를 이룬다. 역동적인 움직임에 부합되는 한국적인 리듬과 묵직하고 강한 느낌의 남성 보컬들의 음색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음악이기에 3장에서 부채 군무로 선한 싸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다) 효과음

이 작품에서 사용되는 효과음은 3가지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못 박히는 소리, 북소리이다. 1장에 사용된 2가지의 효과음 중 하나인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작품의 첫 시작인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에서 땀과 피를 쏟는 장면을 관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하나 못 박히는 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소리로 십자가 죽음을 각인시키고, 흰 천으로 표현하는 휘장의 찢김을 청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게 의도한 것이다. 2장과 3장 사이 10초 동안 흡사 말발굽 소리나 달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작고 빠른 북소리를 사용하여 군대의 모습으로 무장한 채 각자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의 이동이 보이도록 효과음을 첨가하였다.

80) <https://blog.naver.com/mumuschool/50174279988>

3) 의상

무대의상은 공연예술에서 공연자가 착용하는 옷 이외에도 머리 장식, 장신구, 신발, 가면, 분장 등 신체에 착용하는 모든 장신구를 포함한다. 무용 의상은 작품의 이미지와 주제, 안무가의 의도 표현에 초점을 두어 제작되며, 공연자의 표현을 도와주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한다.⁸¹⁾ 이에 창작 무용, 「Euangelion」에서는 무용수별로 각각 설정된 인물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디자인과, 색감, 천의 소재를 달리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3-4〉. 무용수 1 의상



〈그림 3-5〉. 무용수 2 의상

무용수 1의 의상은 예수님의 세마포를 상징하기 위해 백아이보리색의 얇은 울의 실크 소재로 제작하였다. 무용수 2의 의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 쾌자와 치마로 디자인하였다. 쾌자의 색은 초록색, 황색계열인 갈색과 진한 갈색을 염색하였

81) 이선초, (2007). “무용공연에 나타난 작품의상에 관한 연구-서울무용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pp.5-6.

고, 치마는 연한 금색을 사용하였다.



〈그림 3-6〉. 무용수 3 의상



〈그림 3-7〉. 무용수 4, 5 의상

무용수 3의 의상은 불로 오신 성령님을 표현하기 위해 성령강림절의 예전 색인 빨간색을 염색한 실크 소재로 제작하였으며, 긴 쾌자의 밑단을 갈래로 디자인하여 성령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비둘기의 날갯짓이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무용수 4, 5의 의상은 강한 영적 군사를 표현하기 위해 군복의 느낌이 나도록 쾌자와 바지로 디자인하고, 강인함을 상징하는 검정색을 사용하였는데, 역동적이고 강한 움직임에 어울리고, 오브제로 사용하는 빨간 부채와 색감의 대비를 이룰 수 있어 선택하였다. 다음은 의상에 사용된 색의 상징적 의미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5]. 의상에 사용된 색의 상징적 의미

구분	사용된 색	상징적 의미	
무용수 1 의상	백아이보리	- 예수님의 세마포를 상징 - 고결, 순결, 완전함, 성스러움	
무용수 2 의상	초록	- 사랑, 생명, 자연, 새로움, 회복, 성장	- 하나님의 사랑 - 하나님의 속성 - 하나님이 주신 은혜
	황갈색	- 대지, 풍부함, 열매	
	진한갈색	- 아버지, 깊은 땅, 자존감, 책임감	
	금색	- 천상의 색 - 고귀, 존귀, 명예, 정절, 승리, 풍성, 지혜, 영성, 영원함	
무용수 3 의상	빨강	- 성령강림절의 예전색으로 성령을 상징 - 보혈, 생명, 열정, 사랑, 박애	
무용수 4, 5 의상	검정	- 강한 영적 군사를 상징 - 힘, 강인함, 자신감, 결단력	

4) 조명

조명은 무대에서 빛을 사용하여 공간을 아름답게 표현할 뿐 아니라 관객에게 지적, 정서적으로 감동을 주고 공간과 시간을 미학적으로 표현해준다. 특히 무용 조명은 무용수 몸을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준다.⁸²⁾ 창작 무용, 「Euangelion」에서는 장별로 표현되는 내용과 이미지의 전환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조명연출이 사용되었다.

작품에서 조명의 색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4가지를 사용하였는데, 첫째, 파란색은 1장에서 초저녁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예수님의 기도에서 시간을 구분하였고, 2장에서는 성령님의 등장이 부각 될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point) 색이었다. 둘째, 빨간색은 1장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럽게 부각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셋째, 노란색은 1장에서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환희를 담은 감정적 전달을 위해 최대한 밝은 조도로 사용되었다. 넷째, 보라색은 2장과 3장의 주요 색으로, 검정색 군무의 의상과 오브제인 빨간 부채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의 이미지를 투영하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사용된 다른 조명연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윗광(top light)과 상측광(high side light)은 무용수 개별적 움직임이 집중되도록 여러 번에 걸쳐 사용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는데 주로 1장에서 볼 수 있다.

둘째, 사선 길 조명은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암시하기 위해 1장에서 사용되었다.

셋째, 바닥광(foot light)은 예수님의 고난의 동작과 뒷벽에 그 그림자를 함께 보여줌으로 감정적 전달의 극대화를 위해 연출되었다.

넷째, 뒷광(back light)과 옆광(side light)은 군무에서 무용수의 형상과 움직임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부각 되도록 2장에서 사용되었다.

다섯째, 특별조명, 구역 광(specific illumination)은 제한된 지역을 선택적으로 비출 때 사용하는데, 1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결을 위해 가로로, 3장

82) 정미정. (2013). “무용예술을 위한 무대조명의 시각화 방안 연구-무용작품 “사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pp.v-vi.

에서는 군무가 모여서 시온성을 향한 길과 전진의 느낌을 전달하고자 세로로 연출되었다.

무용 조명은 대상을 강조해 주고 설정된 사물, 무용수, 공간을 주의집중시킬 수 있으며, 관객에게 중요한 것은 명확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모호하게 만들어 전달한다.⁸³⁾ 따라서 작품, 「Euangelion」에서는 조명을 통해 대상과 공간을 강조하고 중요한 부분이 잘 전달되도록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였는데, 각 장의 조명연출에 대해서는 작품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은 빛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선명도, 분위기, 효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3-6]. 빛의 방향별 특성⁸⁴⁾

빛의 방향	시각적 선명도	분위기	극적 효과
앞광 (front light)	가장 유용	중성적	극적인 효과가 약함
뒷광 (back light)	사실적 표현을 위해 추가되어 사용	후광만 있을 때 무서움	극적인 효과에 유용
상측광 (high side light)	가시성이 떨어짐	질감 표현이 잘됨	극적인 효과에 매우 유용
옆광 (side light)	상측광과 비슷함 사실성이 떨어짐	질감 표현이 잘됨	극적인 효과에 매우 유용
윗광 (top light)	부적합 그림자가 심하게 생김	공격적	배우를 비출 때 매우 강한 효과
바닥광 (foot light)	매우 이상한 그림자가 생김	공포	효과적이나 부자연스러움

83) 하진선. (2022). “기독교 창작 무용 「Born-Again」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p.35, 재인용.

84) 고희선·김창기·이성호·이종규·천세기. (2007). 『무대조명Ⅲ』. 서울: 교보문고, p.41.

제 4 장 작품의 분석

제 1 절 1장 : 뜻이 이루어지이다

1) 내용 및 안무 의도

기독교 예술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 안에 살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통해 성경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을 뜻한다. 창작 무용, 「Euangelion」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근본 진리 중 하나인 구속을 주제로 창작되었으며, 기독교 신앙에서 또 성경에서 구속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다. 또한, 이 구속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작품 안에 드러내어 그 믿음의 고백을 명확히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장은 작품의 주제 내용이 표현된 장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홀로 하신 것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전체 장면은 누가복음 22장 42-44절의 겟세마네 기도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순차적 진행으로 담아냈고, 구속 사역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함께 존재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님으로 설정된 무용수가 사명을 전달하고, 고통의 시간을 함께하며 애달픈 마음과 힘을 전하고, 부활과 승리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안무를 구성하였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단편이었으나 성령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구속사는 현재진행형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조명과 오브제인 흰 천을 매개로 하나이심이 보이도록 하였다.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아래의 [표 4-1]은 앞으로 나올 무대 구역의 명칭을 구분한 것이고, [표 4-2]는 등장인물과 오브제의 기호와 동선, 경로 색을 구분한 것이다.

[표 4-1]. 무대의 구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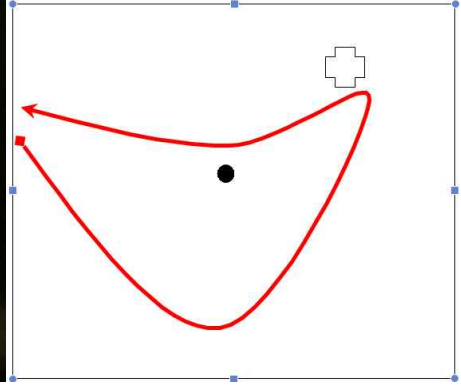
LUS left up stage	CUS center up stage	RUS right up stage
LCS left center stage	CS center stage	RCS right center stage
LDS left down stage	CDS center down stage	RDS right down stage

[표 4-2]. 기호와 경로 색

구분	기호	경로
무용수 1		
무용수 2		
무용수 3		
무용수 4		
무용수 5		
오브제 십자가		
오브제 흰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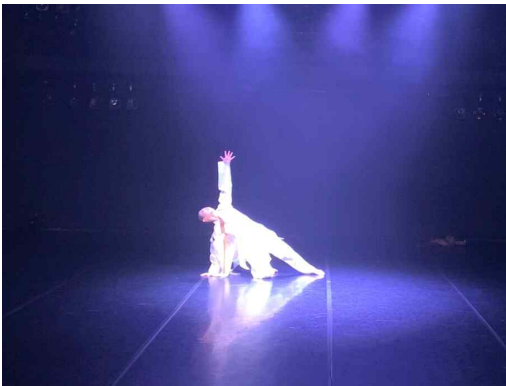


〈그림 4-1〉. 사명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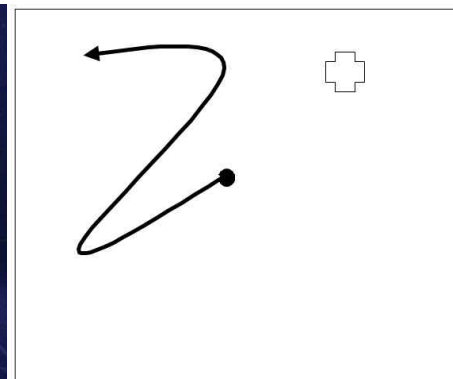


〈그림 4-2〉. 경로 1

〈그림 4-1〉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암시하며 앞으로의 전개와 복선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림 4-3〉. 목숨을 건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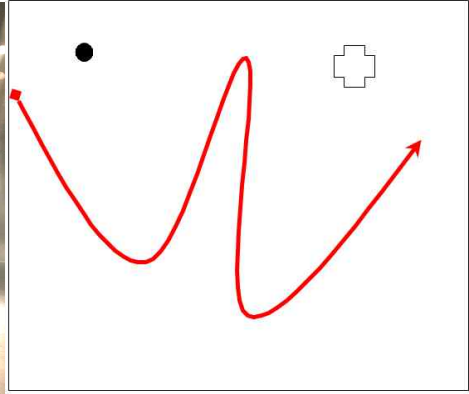


〈그림 4-4〉. 경로 2

〈그림 4-3〉은 겟세마네의 지명이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아람어의 뜻처럼 땀과 피를 흘리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감당할 힘을 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플로어에서 체자리를 무릎으로 돌고, 기고, 구르고, 가슴을 치고, 몸을 던지는 등의 표현을 통해 얼마나 간절한 간구였는지 느껴지도록 하였다.



〈그림 4-5〉. 하나님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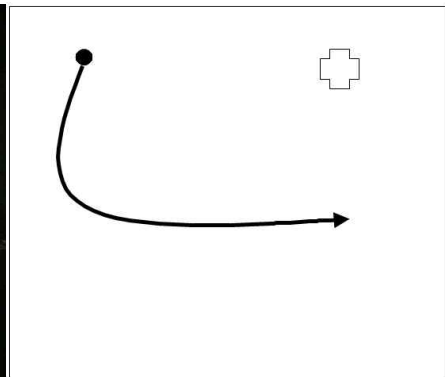


〈그림 4-6〉. 경로 3

〈그림 4-5〉는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을 흰 천의 선, 면, 그려지는 공간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영혼을 사랑하사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 죽음의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들 예수 역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보았다.



〈그림 4-7〉. 고난의 골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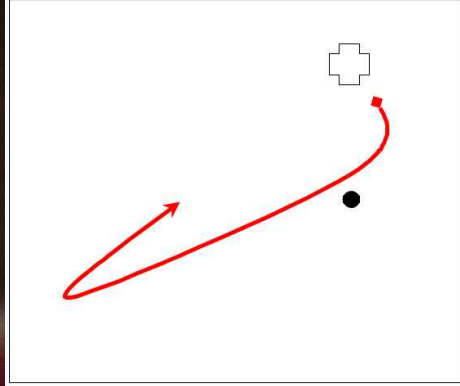


〈그림4-8〉. 경로 4

〈그림 4-7〉은 찢기고 넘어지고 저주와 수모 속에서 겸손히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는 듯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모습을 표현하여 2천년 전의 그곳에 관객들이 가 있다고 느껴지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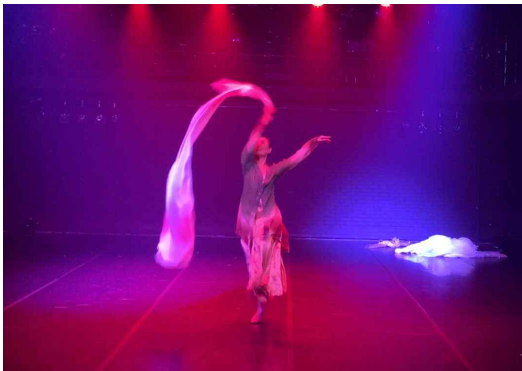


〈그림 4-9〉. 힘을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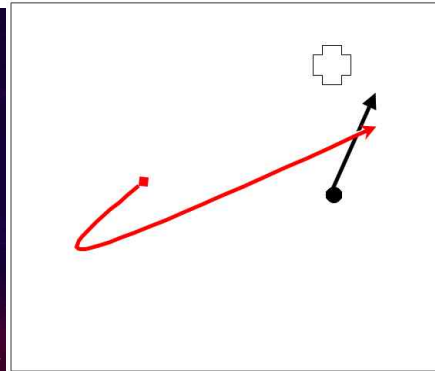


〈그림 4-10〉. 경로 5

〈그림 4-9〉에서는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할 길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또 너와 내가 하나라고 흰 천을 통해 둘 사이를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림 4-11〉. 휘장이 찢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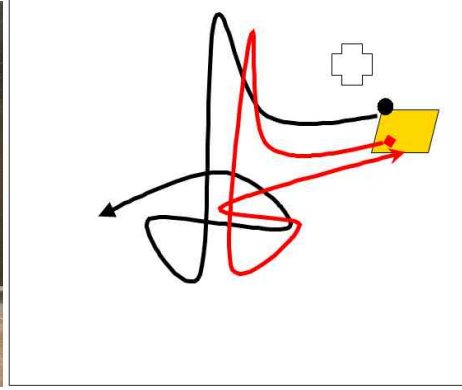


〈그림 4-12〉. 경로 6

흰 천의 휘날리고, 크게 흔들고 던지는 움직임은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성막의 휘장이 찢겨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고이다.



〈그림 4-13〉. 승리의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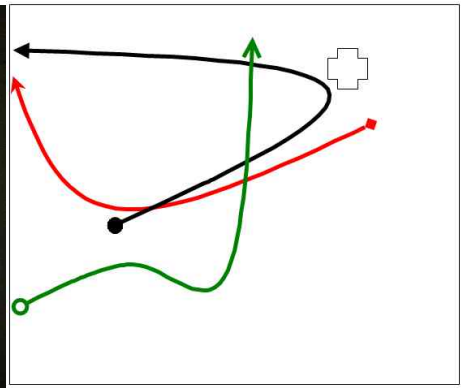


〈그림 4-14〉. 경로 7

이제까지 1장에서 추어진 춤은 각자가 시간차를 둔 독무 형태였으나 승리의 부활을 표현한 〈그림 4-13〉 부분에서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춤을 춘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짐을 표현하는 동작으로 구성하였으며, 노란색과 백색 광을 가장 밝은 조도로 사용하여 공간적으로도 그 환희를 함께 느끼도록 하였다.



〈그림 4-15〉. 삼위일체 하나님



〈그림 4-16〉. 경로 8

영혼 구속 사역이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예수님에게 다시 성령님에게로 연결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자 하였다.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러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오늘도 현재진행형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3) 음악

1장에 사용되는 주 음악은 클래식 콰이어의 앨범 중에 수록된 CCM 찬양곡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인데, 이 곡은 “젯세마네 기도”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토대로 가사가 쓰였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권어주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다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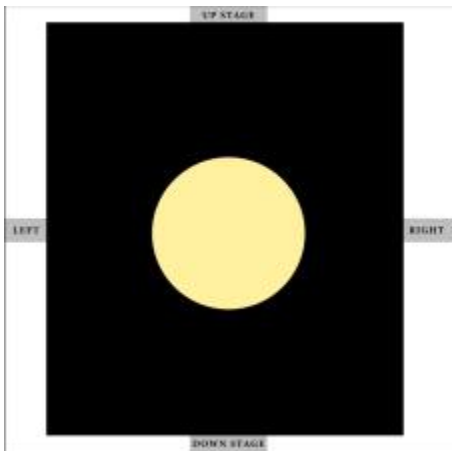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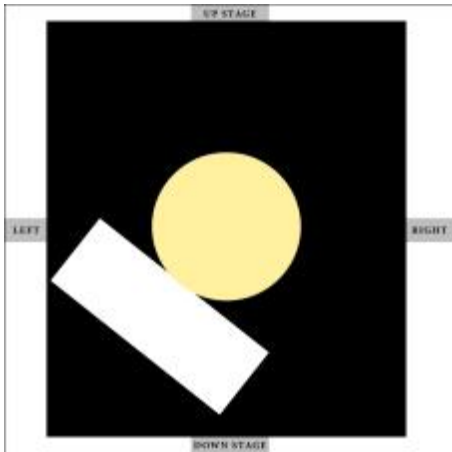
예수님의 젯세마네 기도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이 곡의 가사는 1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그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의 모습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상기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며 다시금 다짐하게 한다. 담담하고 차분하게 부르는 남녀 혼성 중창곡으로 장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극한 감정의 움직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시작에 효과음으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사용해 예수님의 젯세마네 기도에서 땀과 피를 쏟는 장면이 집중되도록 하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에서 못 박는 소리를 효과로 삽입하여 희생을 각인시키고, 동시에 흰 천으로 표현하는 휘장의 찢김을 청각적으로도 느끼게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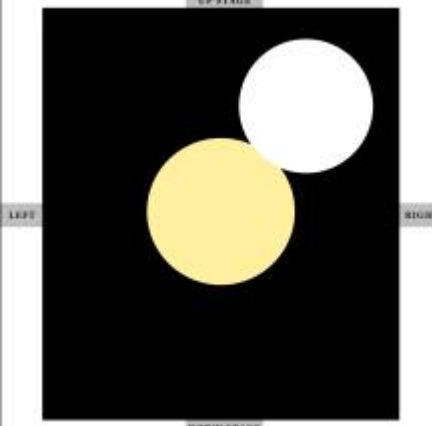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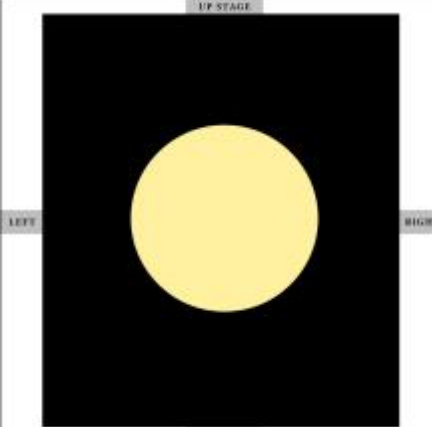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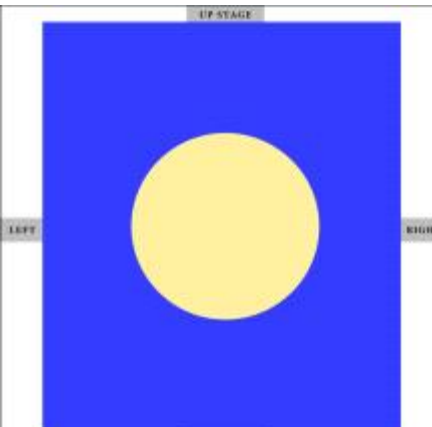
85) 클래식 콰이어가 부른 CCM 찬양곡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의 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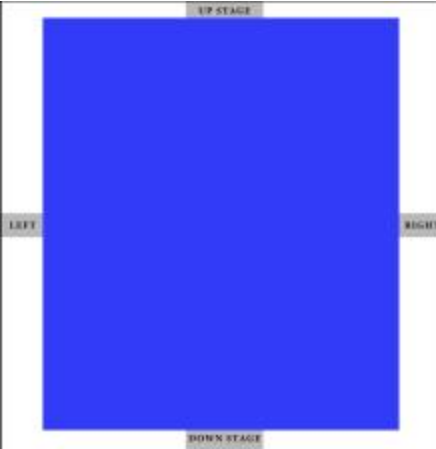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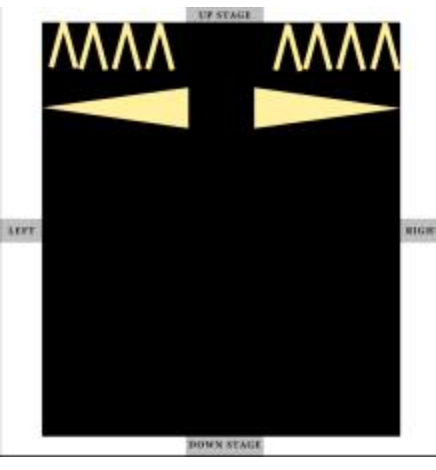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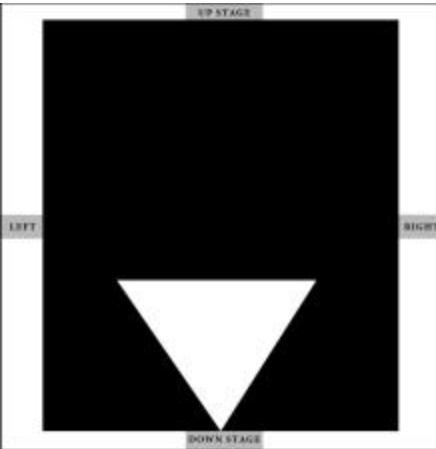
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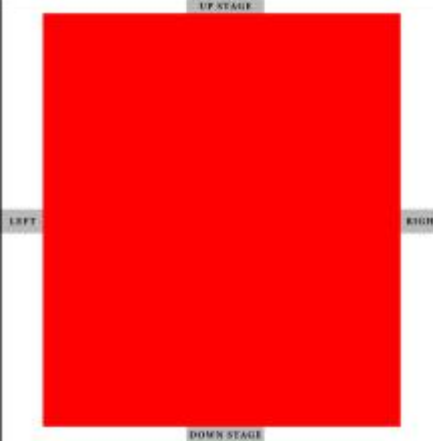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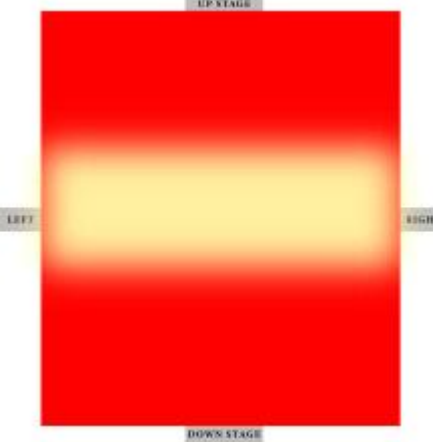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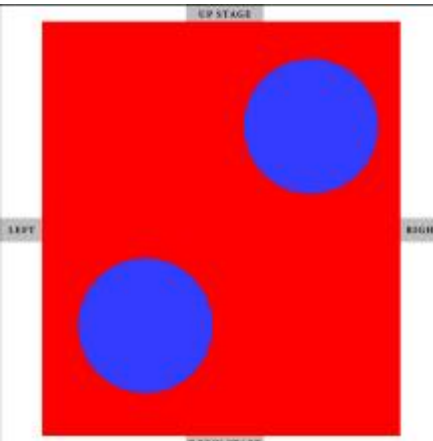
1장에서는 연극적인 연출이 필요했으므로 가장 많은 조명연출이 사용되었다. 다음은 표를 통해 조명 효과와 사용한 조명, 부각하고자 했던 장면의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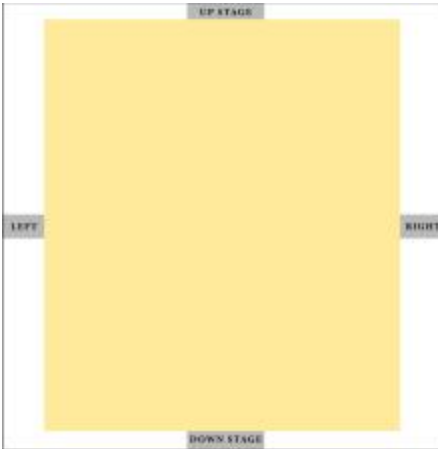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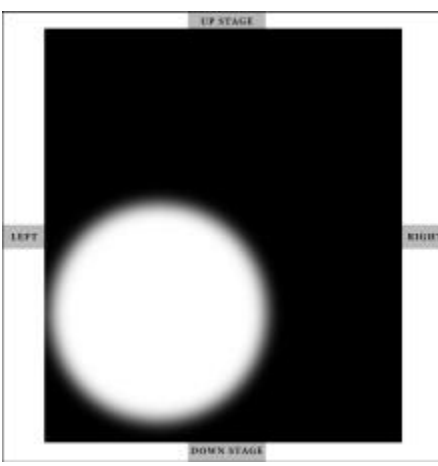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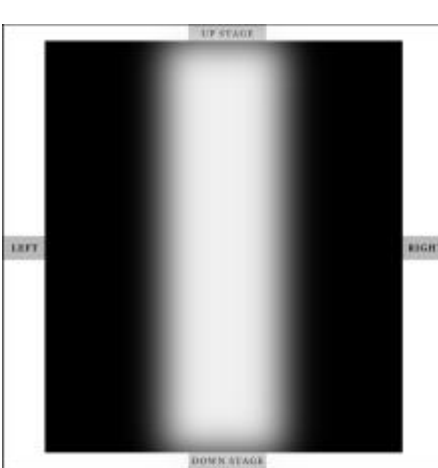
[표 4-3]. 1장의 조명 플랜

구분	조명 효과	사용한 조명 / 장면설명
1		- black-out - CS에 top light 노란색 60%
		예수님의 기도 모습에 집중되게 한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게 하여 시각적인 집중을 유도한다.
2		- CS에 top light 노란색 60% - LDS에 사선 길조명 백색 100%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곁을 지난다.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암시한다. 〈그림 4-1〉 참고

3		- CS에 top light 노란색 60% - RUS에 top light 백색 80%
4		- CS에 더 커진 top light 노란색 80% 한 조명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예수님 곁에서 기도를 돕는다.
5		- 배경 파란색 60% - CS에 top light 노란색 80% 예수님의 바닥을 기며 몸부림치 는 기도 모습에 집중되게 한다. 〈그림 4-3〉 참고

6		- 배경 파란색 100%
7		- back light 100% - side light 100% 하나님이 흰 천을 가져와 독무를 진행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천의 움직임과 조명을 통해 명확하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림 4-5〉 참고
8		- foot light 백색 100%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모습이 뒷벽에 그림자와 함께 보이도록 하여 감정적 전달의 극대화를 연출한다. 〈그림 4-7〉 참고

9		- 배경 빨간색 100%
10		- 배경 빨간색 100% - specific illumination 가로 노란색 100%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한다. 흰 천과 조명을 사용하여 하나님 이 예수님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전하는 모습을 주 목하게 한다. 〈그림 4-9〉 참고
11		- 배경 빨간색 80% - LDS에 top light 파란색 80% - RUS에 top light 파란색 80%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 는 곳과 하나님이 흰 천의 움직 임으로 휘장을 찢어 내는 것이 집중되게 한다. 〈그림 4-11〉 참고

12		- 배경 노란색 100%
13		- LDS에 high side light 백색 100%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한 조명, 한 공간 안에 모이게 하여 삼위일체와 구속 사역이 공동사역을 암시한다. 〈그림 4-15〉 참고
14		- specific illumination 세로 백색 100% - 조명 fade-out 예수님의 승천 LUS로 퇴장할 때 구속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이려고 성령님이 흰 천을 움직이며 점점 CUS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게 한다.

제 2 절 2장 :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1) 내용 및 안무 의도

1장이 복음서의 내용을 담아냈다면 2장은 사도행전 이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현재도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의 이야기로,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새롭게 거듭난 나,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⁸⁶⁾ 것이듯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거듭나야 한다.

2장에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표현하기 위해 다시 성경의 내용을 주목하였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오셨던 비둘기 형상⁸⁷⁾,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오신 바람 소리와 불길의 형상⁸⁸⁾을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하였다. 또한, 거듭난 성도들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토대로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살아나 생기를 얻고 군대가 되는 과정⁸⁹⁾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86) 요한복음 20:19-22.

87) 누가복음 3:16.

88) 사도행전 2:2-4.

89) 에스겔 37: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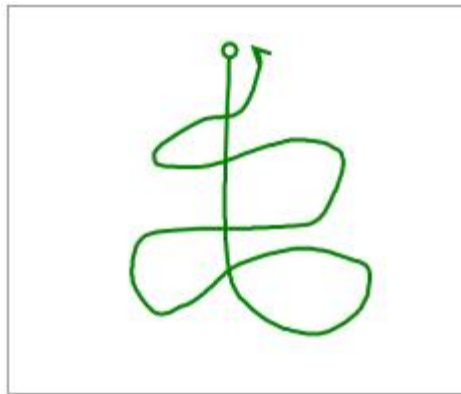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17〉. 성령의 임재



〈그림4-18〉. 영혼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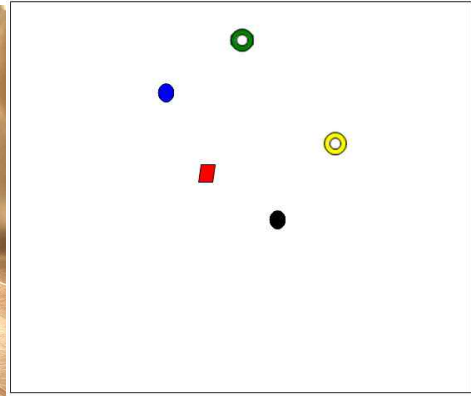


〈그림4-19〉. 경로 9

예수님의 승천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비둘기, 불, 바람을 이미지화 및 형상화하여 우리에게 내려오심이 느껴지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스모그와 조명연출을 통해 신비스러움이 느껴지게 하고, 무대의 센터 공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성령님의 이동과 움직임이 집중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4-20〉. 새로운 피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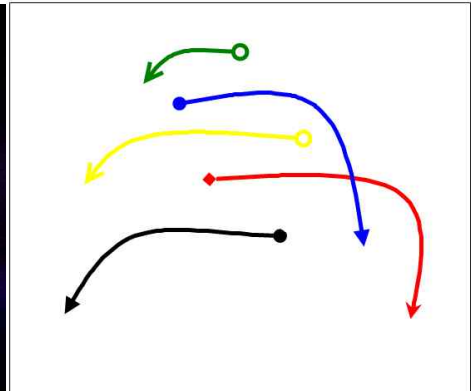


〈그림 4-21〉. 경로 10

성령님이 임재하면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죄악에 묶였던 올무가 풀 어지게 되니 비로써 죄와 사망에서 회복된다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에스겔의 환상을 모티브로 삼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을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움직임으로 표현하여 5인이 동작을 정확하게 맞추어 추는 군무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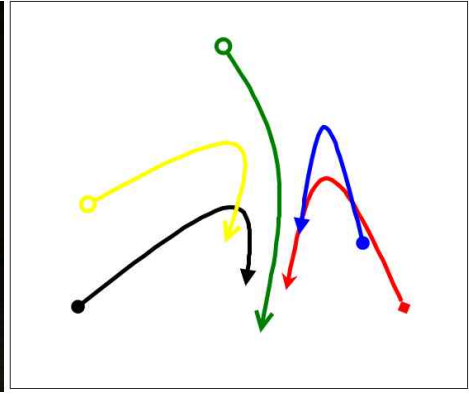
〈그림 4-22〉.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그림 4-23〉. 경로 11



〈그림 4-24〉. 우리의 선포



〈그림 4-25〉. 경로 12

〈그림 4-22〉와 〈그림 4-24〉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의 모든 것 자신의 유익과 자랑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자아를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새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이 땅이 아니기에 힘을 내어 소망을 품고 주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리라는 거듭난 성도들의 사명 선언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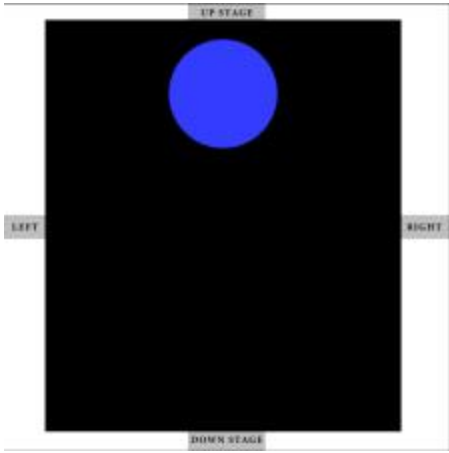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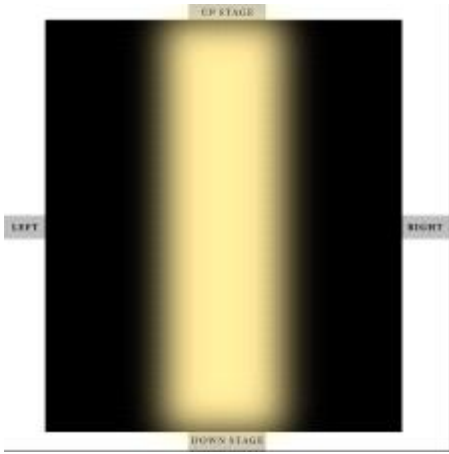
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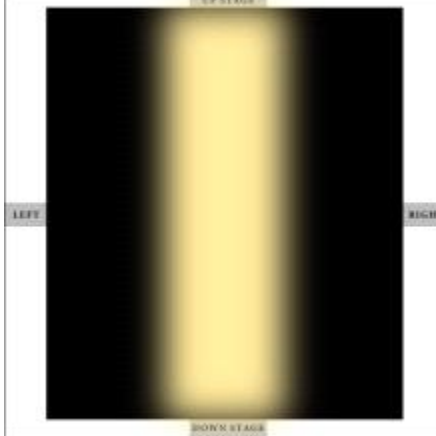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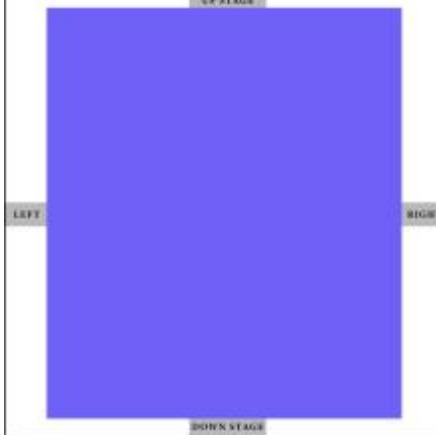
2장에서는 작품을 위해 제작된 2개의 음악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 곡은 성령님의 임재를 표현한 독무를 위한 것으로, 대북을 사용해 크고 천천히 북을 치다가 템포가 점점 빨라지면서 마치 심방박동 소리처럼 표현하며 고조를 이루고 끝이 난다. 이는 영혼을 찾아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성령님의 표현 동작을 더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곡은 바람 소리와 좀 더 빠른 템포의 대북 소리 그리고 현대적 전자 사운드를 접목한 것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성령의 임재로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과정과 결단의 움직임에 부합되도록 강하고 간결한 느낌으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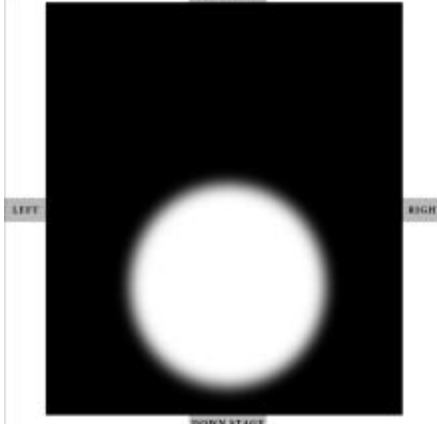
4) 무대장치 및 조명

2장에서는 성령님의 첫 등장에 스모그(smog)를 사용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임재의 모습을 신비롭게 보이도록 하였다. 다음 표는 사용된 조명과 조명 효과, 각 장면을 정리한 것이다.

[표 4-4]. 2장의 조명 플랜

구분	조명 효과	사용한 조명 / 장면설명
1		- CUS에 파란색 top light 60%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이 신비롭게 보이도록 한다. 〈그림 4-17〉 참고
2		- specific illumination 세로 노란색 100% - 조명 빠르게 out
		성령님이 불과 같은 형상과 영혼을 찾아 품에 안는 움직임을 할 때 그 과정이 조명 아래 제한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그림 4-18〉 참고

3		- back light 100% - side light 100% - CUS에 백색 - top light 100% 성도들의 형상과 거듭나는 과정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입체감 있게 표현되도록 한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부각 되게 top light를 사용한다. 〈그림 4-20〉 참고
4		- specific illumination - 세로 노란색 100% 성도들이 살아나고 일어나 새롭고, 힘차게 됨을 의미하며 군무의 직선 대형이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5		- 배경 보라색 100% 성령의 내주하심과 살아나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품어 앞으로 나갈 희망적 모습을 암시하여 보라색 배경을 사용한다. 〈그림 4-22〉 참고

6		- CDS에 high side light 100% - 조명 빠르게 fade-out 생명을 얻어 새롭게 일어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형상에 집중하도록 한다. 〈그림 4-24〉 참고
---	---	--

제 3 절 3장 : 시온성을 향한 선한 싸움

1) 내용 및 안무 의도

복음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기억하며, 전파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다.⁹⁰⁾ 3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군사가 되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과, 중국에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드러내는 장으로 현재형이며 또한 미래지향적이다.

거듭난 성도인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한데, 3장에서는 오브제인 빨간 부채를 사용하여 전신 갑주 안에 있는 무기를 이미지화 및 형상화한 움직임과 대형 변화를 사용해 5인 군무로 표현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므로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군무의 움직임과 이동, 대형 등을 구성할 때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안무하였다. 중국엔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 시온성을 향한 전진을 마지막으로 담아,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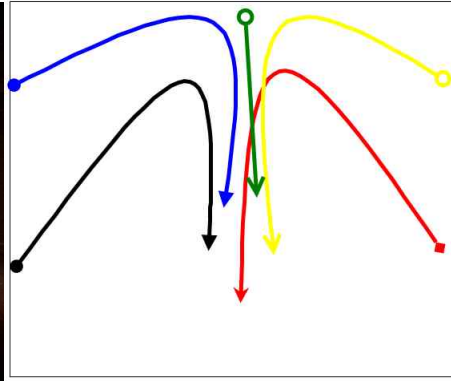
9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5496&cid=50762&categoryId=51365>
『교회용어사전』.

관객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듯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26〉. 하나님의 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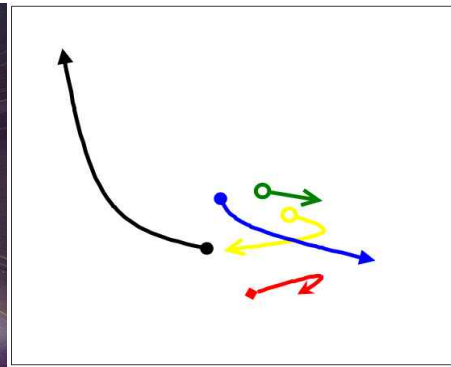


〈그림 4-27〉. 경로 13

온 세상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군사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대장으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담고자 조밀한 구도로 점진적 전진의 동작과 오브제인 부채를 깃발처럼 들어 사용해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강인한 모습이 보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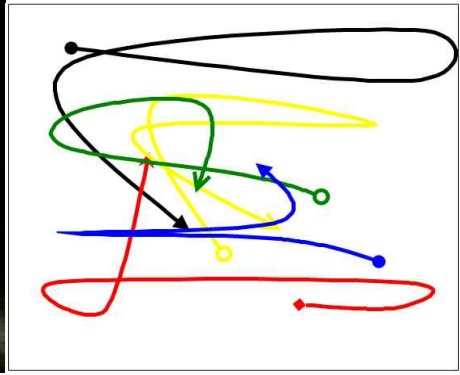
〈그림 4-28〉. 전신 갑주를 입고 1



〈그림 4-29〉. 경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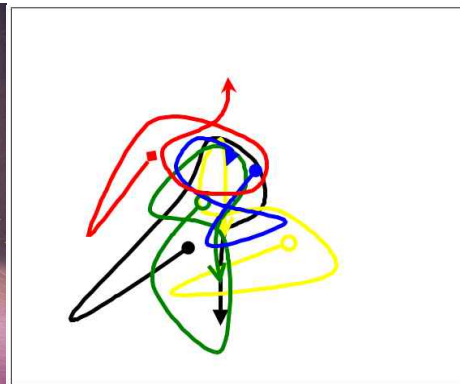
〈그림 4-30〉. 전신 갑주를 입고 2



〈그림 4-31〉. 경로 15



〈그림 4-32〉. 선한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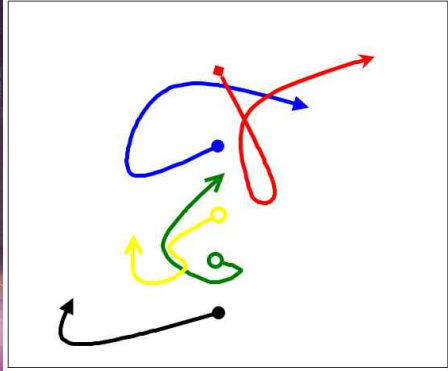


〈그림 4-33〉. 경로 16

3장에서는 보혈, 생명, 승리를 상징하는 빨간색의 부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미지화 및 형상화하여 5인 군무로 표현하였다.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진리, 정의의 가슴막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믿음과 사랑, 평화의 복음의 신발은 복음 전도,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기의 형상으로 표현해 보았다. 또 선한 싸움이 영적인 의미이지만 빠른 동작과 이동, 다양한 대형 변화로 구성하여 흡사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연상되도록 하였다.



〈그림 4-34〉. 나팔 소리 시온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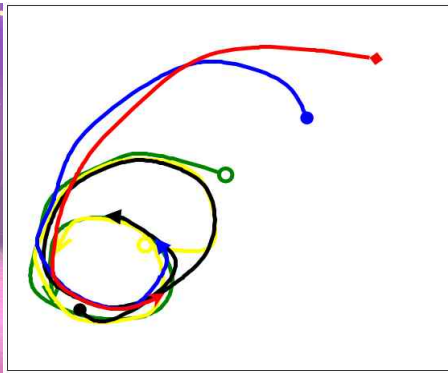


〈그림 4-35〉. 경로 17

〈그림 4-34〉는 예배용 양각 나팔을 부는 모습과 성도의 함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청지기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 즉 삶이 예배인 것을 담아 보았다.



〈그림 4-36〉. 하나님의 날개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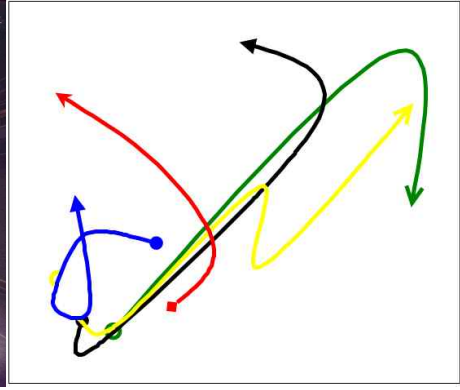
〈그림 4-37〉. 경로 18

〈그림 4-36〉은 부채로 방어진을 만드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는⁹¹⁾ 다윗의 시를 보면서 진정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 아래임을 기억하며 그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 있도록 부채를 덮고 서로 돌면서 단단한 성을 이미지화하였다.

91) 시편 61:4.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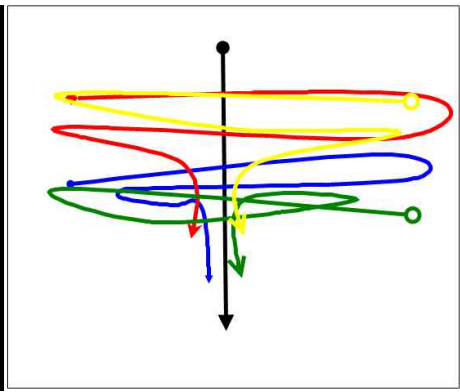
〈그림 4-38〉. 시온성을 향하여 1



〈그림 4-39〉. 경로 19



〈그림 4-40〉. 시온성을 향하여 2



〈그림 4-41〉. 경로 20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방어와 공격 즉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기에 〈그림 4-38〉에서와 같이 부채를 사용해 방패와 검으로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을 담아냈다. 마지막에 우리가 설 거룩한 시온성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 맘과 뜻과 힘을 다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점진적 전진과 함성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였다.

3) 음악

2장과 3장 사이에 흡사 말발굽 소리나 달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작고 빠른 북소리를 효과음으로 사용하여 군대의 모습으로 무장한 채 각자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의 이동이 보이도록 하였다.

3장의 주 음악은 예수전도단의 음반에 수록된 곡 중 국악 풍의 CCM 찬양곡인 “저 성벽을 향해”로 남성 중창단이 북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는 곡이다. 한국적인 리듬과 묵직하고 강한 느낌의 곡으로 중반 이후 해금과 양각 나팔 소리가 첨가되면서 더욱 고조를 이룬다. 오브제인 부채를 사용한 역동적인 군무에 부합되어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음악이며, 시작과 끝에 제사장이 찬양과 경배, 예배용으로 사용하던 양각 나팔⁹²⁾ 소리를 첨가하여 이 모든 과정이 예배임을 명시하고자 하였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거룩한 성에 아 - 울려라⁹³⁾

이 찬양곡을 작사·작곡한 썸의 장막의 손해석 목사는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3분박의 리듬과 국악기를 사용하여 곡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에는 편집되어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 성벽을 향해” 원곡에는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행군하랍시다”라는 본인 육성 멘트가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전신 갑주를 상징하는 부채 군무의 군사적 움직임으로 구성된 3장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곡이다. 가사에 나오는 단어 ‘시온성’은 하늘 예루살렘 성, 천성, 영원 복락의 처소를 상징한다.⁹⁴⁾ 새 언약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완전히 소유할 나라임과 동시에 이미 소유

92) <https://blog.naver.com/mumuschool/50174279988>

93) 예수전도단의 앨범 중 썸의 장막이 부른 CCM 찬양곡 “저 성벽을 향해”의 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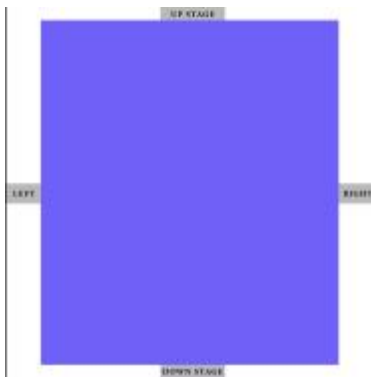
9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5889&cid=50762&categoryId=51365>
『교회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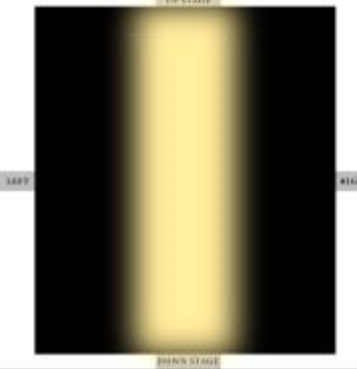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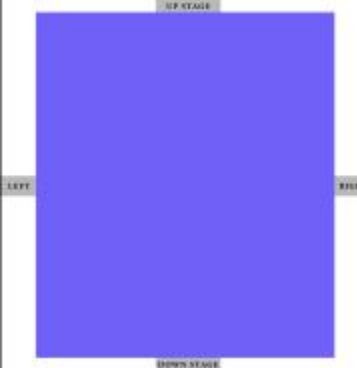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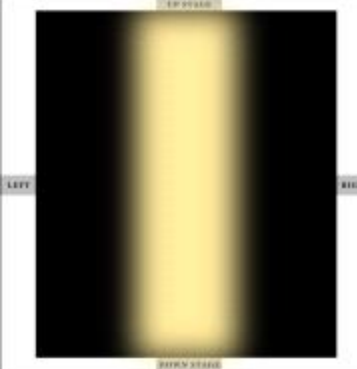
하고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 우리가 복음과 구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 시온성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무대장치 및 조명

3장에서는 전진의 느낌을 위해 세로구역 조명이 사용되었고,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느껴질 뿐 아니라 검정계열 의상과 빨간 부채가 잘 보이도록 색의 발란스를 맞춰 전체 보라색 조명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을 다시 세로구역 조명을 사용하여 시온성을 향한 전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한 후 페이드아웃(fade-out)으로 마무리하였다. 다음의 표를 통해 3장에서 사용한 조명과 조명효과, 조명연출이 사용된 장면을 정리하였다.

[표 4-5]. 3장의 조명 플랜

구분	조명 효과	사용한 조명 / 장면설명
1		- 배경 보라색 100% - 조명 fade-in
		영적 군사로 일어나 사방에 퍼져있는 성도들이 다 보이도록 하며, 검정 의상과 빨간 부채와의 조화를 고려해 보라색 배경을 사용한다.

2		- specific illumination 세로 노란색 100%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한다’는 가사와 함께 전진의 군무 동작이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보이도록 한다. 〈그림 4-26〉 참고
3		- 배경 보라색 100% 전신 갑주로 무장한 성도들의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이 다양한 대형과 함께 보이므로 의상과 오브제의 색깔 조화를 위해 보라색 배경을 사용한다. 〈그림 4-28~38〉 참고
4		- specific illumination 세로 노란색 100% - 조명 fade-out 거룩한 시온성을 향하는 성도들의 전진과 관객들이 동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한다. 〈그림 4-40〉 참고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 무용, 「Euangelion」에 대한 분석연구로서, 작품의 내용적, 형식적 의미를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자는 기독교 무용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한 무용 예술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적 움직임의 바탕으로 표현방법을 연구하여 작품으로 발전시켰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자연과 인간과 사회 문화를 통틀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틀이기에 그 기준이 우리의 삶 전반에 행해지는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므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목표가 설정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듯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이 필요한데,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의 근본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 이 3중 렌즈를 모두 사용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하다. 아울러 기독교 예술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 교회뿐 아니라 세상 문화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 중 구속을 주제로 하여 성경의 말씀들을 표현의 모티브로 삼아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작품, 「Euangelion」은 한국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여 표현방법을 연구하였기에 우리나라의 이야기인 듯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고, 사실적인 표현의 안무와 스토리텔링 전개를 적용하여 마치 무용극을 보듯이 내용과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하였다.

「Euangelion」은 3장으로 구성되었고, 총 13분 10초가 소요되는 작품으로, 내용의 흐름에 따라 음악의 전환과 조명연출로 장면 전환을 만들었다. 오브제로는 예수님의 사명인 나무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인 흰 천, 전신

갑주를 뜻하는 빨간 부채를 사용하여 상징적, 감정적 의미들을 전달하였다. 작품을 통해 본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3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독교 세계관의 구속과 연결하여 명확한 복음의 내용으로 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예수님의 겿세마네 기도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를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사실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조명연출로 중요 장면을 부각 되게 하였고, 겿세마네 기도의 내용인 누가복음 22장 42-44절 성경 말씀을 토대로 가사가 쓰인 음악을 사용하여 장면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하였다.

둘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의 본질이면서 구분된 세 인격이라는 기독교 정통적 신앙고백 위에 구속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밝혀 관객들에게 전달하려 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흰 천으로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투영하는 장면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퇴장한다거나 흰 천으로 서로의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등으로 연출하여 구속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는 것이 부각 되게 하였다.

셋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의 비전 즉 우리의 소명을 담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관객들과 나누고자 시도하였다. 5인 군무 형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간결하고 명확한 동작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남을 표현한 것, 오브제인 빨간 부채를 활용하여 전신 갑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 역동적인 동작과 다양한 대형 변화, 빠른 이동을 통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흡사 전쟁과 같이 표현한 것, 반복적인 전진의 동작을 사용한 것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번 작품공연을 통해 느낀 것 중 하나는, 공연예술의 구성요소들을 잘 준비하고 작품에 맞게 선택하기 위해서 안무자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의 캐릭터에 맞는 의상을 디자인하고 어울리는 소재와 색깔을 선택해 제작하는 것, 안무와 일치할 수 있는 음악을 잘 선택하는 것, 시

간적, 공간적, 감정적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조명기기와 연출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작품의 구성과 움직임에 맞는 공연장을 선택하는 것 등이다. 「Euangelion」의 의상은 작품에 맞게 디자인하여 제작되었기에 작품의 내용이나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였고, 기성복이 아닌 무용복이기에 무용수의 움직임도 편안하고 자유로웠으면, 천의 질감이나 소재가 주는 느낌이 안무와 결합되어 의도한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음악에 관해서도 작품을 위해 직접 제작하기도 했지만, 기독교 무용은 대체로 음반으로 발매된 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버전 중 안무와 어울리는 곡을 제작 배경까지도 살펴 신중히 선택해야 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편집이나 믹싱, 첨가 등의 작업도 유용하다고 생각되었다. 1장에서 특히 많은 조명연출을 사용하였는데, 색상이나 빛의 방향, 조도에 따라 부각하고자 하는 바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가장 적절하고 효과 있는 선택을 위해 안무자가 조명기기와 연출에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작품의 무대공연을 위해 극장을 선택할 때도 무용수의 이동 경로와 움직임이 잘 보이도록 전체 구성에 맞는 효과적인 크기의 무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공연을 통해 안무자에게는 다방면의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전에 구성요소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기독교 무용이 극장에서 공연될 때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본 작품을 창작하고 극장 공연을 하면서 성경 안의 복음적인 내용을 작품화하고, 성경 구절 속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표현들을 끌어내어 움직임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러기에 기독교 세계관을 더욱 확고히 확립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 그 안에 있는 보물과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향후 더 많이 창작되고, 극장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작품공연이 복음의 선포와 전도에 보다 적극적인 통로로써 가교역할을 하고, 기독교 무용의 활성화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고재봉. (1992). 에베소서 6장 10~20절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과 실천』. 15(1), 11-29.
- 고희선·김창기·이성호·이종규·천세기. (2007). 『무대조명Ⅲ』. 서울: 교보문고.
- 김광옥. (2017). 『한국음악을 활용한 기독교 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 김민호. (2022). 『기독교세계관』. 경기도: 리바이벌북스.
- 라영환. (2007). 『예술, 모더니즘 그리고 기독교 신앙』. 서울: 예서원.
- 리차드 미들톤·브라이언 왈쉬. (1987).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역). 서울: IVP.
- 백금산·김종두. (2014). 『만화로 보는 조직신학 시리즈 만화신론』. 서울: 부흥과개혁사.
- 송인규. (2008).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서울: IVP.
- 신국원. (2002).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서울: IVP.
- _____.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아더 홈즈. (1983). 『기독교적 세계관』. 이승구(역). 서울: 엠마오.
- 안점식. (1998). 『세계관을 분별하라』. 서울: 조이선교회.
- 알버트 월터스. (2007).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홍병룡(역). 서울: IVP.
- 양승훈. (1999).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CUP.
- 오진철. (2022). 삼위일체 신관의 신학적 의미와 목회적 적용. 『복음과 실천』, 69(1), 37-59.
- 유은경. (2018). 『기독교 예비영유아교사의 기독교세계관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선민. (2010). 『무용작품에 나타난 음악적 특성 연구-Mark Morris의 「Falling Down Stairs」와 Trisha Brown의 「M·O」를 중심으로

- 』.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선초. (2007). 『무용공연에 나타난 작품의상에 관한 연구-서울무용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승구. (2003).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 장차오. (2022). 『무용 창작시 오브제의 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전광식. (1995).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사상연구』, 2, 7-20.
- 정미정. (2013). 『무용예술을 위한 무대조명의 시각화 방안 연구-무용작품 “사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 제임스 사이어. (198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역). 서울: IVP.
- 최용준. (2008). 『세계관은 삶이다』. 서울: CUP.
- 최지연. (2013). 『기독교무용의 가치인식 변화에 따른 공연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최태연. (2019). 기독교예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할 것인가. 『기독교사상연구』, 27, 151-177.
- 프란시스 쉼퍼. (1962). 『예술과 성경』. 김진홍(역). 서울:생명의말씀사.
- 하진선. (2022). 『기독교 창작 무용 「Born-Again」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한스 로크마커. (1993).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김유리(역). 서울: IVP.
- 힐러리 브랜드·아드리엔느 채플린. (2004). 『예술과 영혼』. 오윤성(역). 서울: IVP

부록

1.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Euangelion
일시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M 극장
안무	장미희
음악	클래식 콰이어 -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작곡된 음악 예수전도단 - “저 성벽을 향해”
출연	장미희, 손수진, 최희원, 오선자, 최한솔
의상	유앙겔리온 무대의상
조명디자인	허환
주최	한성대학교
소요시간	13분 10초

2. 공연 프로그램

2023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무용전공 무용공연전공
석사학위청구 작품발표회

Hansu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Dept. Dance
Christian Dance Dance Performance
A Master's degree Show

Christian Dance
기독교무용 전공
이연호 한영실 장미희

Dance Performance
무용공연 전공
김주현 허예슬 손영빈

2023.11.20(월) 19:00
M극장

작품내용

Euangelion
안무 장미희

Euangelion은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로 성경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본 작품은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창조, 타락, 구속의 3요소 중
복음의 핵심인 구속을 주제로 창작되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하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고통의 모든 순간 함께하시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은 세상 영혼 구속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어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영적 군사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온성을 향해
오늘도 전진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출연

장미희

손수진

최한솔

오선자

최희원

ABSTRACT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Work, 「Euangelion」

Chang, Mi-Hee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research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Euangelion」 focusing on the content and formal significance of the work. The researcher has come to feel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a Christian world-view into dance art research for the activation and development of Christian dance. In response, the researcher chose the theme of salvation, one of the fundamental truths of the Christian world-view, and conceptualized the work using the words of the Bible as motifs for expression.

The dance piece, 「Euangelion」 was developed based on Korean movements to create a form of expression that would make the audience feel connected to the narrative of Korea, minimizing emotional distance. Additionally, realistic choreography and storytelling techniques were

applied to ensure that the content and message could be effectively conveyed to the audience, creating an experience akin to watching a dance drama.

Christian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sound Christian world-view, where the foundation is grounded in the teachings of the Bible. A Christian must view, understand, decide, and act in the world using the threefold lens of creation, fall, and redemption, which are the fundamental truths of the Christian world-view and the Bible. Moreover, Christian artists, as instruments of praise to God, should strive to fulfill the role of light and salt not only within the church but also in the broader cultural context. Through creative endeavors, their works should manifest God's glory, and they must endeavor to reveal God and the Gospel in the world. This effort is not only for the glorification of God but also to serve as an instrument for His praise in both the church and the broader cultural sphere.

"Euangelion" is a Greek word meaning "good news" or "gospel," signifying the joyous message of human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The work, 「Euangelion」 consists of three movements, with a total duration of 13 minutes and 10 seconds. Using transitions in music and lighting, the piece creates a seamless flow between scenes.

In the first movement, the audience experiences the moments from Jesus Christ's prayer in Gethsemane to the trials of the cross, the agony of death, the resurrection, and the ascension, as if witnessing these events in real life. It portrays God being present in every moment of Jesus' redemptive work, conveying love and strength, and expressing the joy of resurrection and victory through dance. The crucifix, symbolizing Jesus' mission, and a white cloth, representing God's heart and love, are used as props. Various lighting techniques are employed to enhance dramatic scenes. The final scene conveys the Triune God working together in the

redemptive work through the use of white fabric and lighting effects.

The second movement represents the dove, wind, and fire, symbolizing the Holy Spirit. These elements are visualized to create movement and expression. Additionally, to portray the renewed saints, the movement draws inspiration from Ezekiel's vision of dry bones coming to life, creating a concise and progressive choreography for a 5-member ensemble.

The third movement depicts saints engaging in spiritual warfare symbolized by red fans representing full-body armor. To showcase their commitment to faith,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advancement towards the heavenly Zion, the choreography utilizes fan movements, various large-scale transformations, swift motions, and progressive forward actions for the 5-member ensemble. Additionally, vertical lighting is employed to highlight the collective movement of the ensemble.

In this work, the researcher aimed to convey three specific meanings. Firstly, to integrate the redemptive work of Jesus Christ with the Christian world-view of salvation, presenting a clear gospel message. Secondly, to communicate to the audience that the redemptive work is a collaborative effort of the Triune God, with the God the Father, the Son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being one essence yet distinct personalities according to orthodox Christian beliefs. Thirdly, to express the vision of renewed saints as a new creation, encapsulating our calling to uphold faith, proclaim the gospel, and hope for the kingdom of God, sharing these aspirations with the audience.

Through this performance, the researcher hopes to see a future activation of creative works themed around Christian world-view, creation, fall, and redemption. Furthermore, the application of such creative works and performances could serve as a more active channel for evangelism and proclamation of the gospel,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hristian dance. The researcher looks forward to the growth of Christian artistic expressions centered on these themes, aspiring for their active role as a bridge in evangelism and contributing to the vibrancy and advancement of Christian dance.

【Key Word】 Christian Dance, Christian Creative Dance Performance, Christian World-view, Redemption, Euangelion